

II. 新엔고와 韓日 經濟

1. 新엔고와 日本 經濟

○ (日本經濟 影響)

- 수출·투자에의 타격으로 경기 회복력 둔화
- 輸入物價 下落으로 個人消費에는 플러스
- 經常黑字의 대폭적인 減少 豫想
- 엔고 抵抗力이 기업 規模에 따라 兩極化되는 현상 심화

○ (日本の 對應 方向)

- 短期：公共投資의 擴大를 통한 地진복구 대책
- 長期：엔화 結제율 제고, 엔블럭 조성과 지속적인 海外 生産

(1) 新엔고와 日本 經濟

○ 투자·수출에의 타격으로 경기회복력에 어두운 그림자

- 95년도 정부 예상 성장율 2.8%는 엔 환율이 1 달러=100 엔에서 정착될 것을 전제한 수치임.
- 만약 新엔고로 1 달러가 90엔 전후로 정착되면 해외 수요 감퇴로 인한 수출 둔화로 예상되는 성장율은 2.0% 내외임

○ 新엔고에 의한 물가 하락으로 個人消費에는 플러스 효과가 기대됨

- 新엔고는 輸入物價의 하락으로 家計의 實質購買力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

○ 수출 감소·수입 증가로 經常黑字는 크게 감소될 것이 예상됨

- 96년 예상흑자는 현재 흑자폭을 거의 半減하는 수준인 5백억 달러로 예상됨

(2) 기업 規模에 의한 엔고 抵抗力의 兩分化 현상

○ 新엔고로 일본 수출기업의 엔고 대응력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85년 엔고 국면부터 ① 해외생산 확대, ② 해외 부품 조달 비율의 확대, ③ 국내 판매강화에 의한 수출비율 감축, ④ 円결재 수출 비율의 확대를 통해 엔고 저항력을 키워온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간에 收益回復力이 크게 양극화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엔고는 기존의 국내비용 절감 노력이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시기에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선 수출 지역의 현지 가격 인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국면임

○ 국내 중소 제조업에의 타격이 매우 심각

- 식료품, 의류 중심으로 수입품 가격의 인하는 일본 국내에서 경합하는 제품을 생산해 온 중소 제조업에 결정적 타격이 예상됨
- 新엔고는 최근 경기회복 국면에서도 침체되어 있었던 중소기업의 투자 의욕을 더욱 냉각시킬 것임

< 新엔고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전년대비증감, %)

환율(엔/달러)		100엔		95엔		90엔	
연도	94	95	96	95	96	95	96
실질GDP	0.9	2.6	3.0	2.2	2.2	2.0	1.8
민간소비	2.1	3.4	3.1	3.4	3.1	3.5	3.0
민간투자	-5.4	7.5	11.9	7.4	9.9	7.3	9.0
수출	4.7	5.9	3.0	4.1	1.9	3.3	1.4
수입	8.8	8.0	13.5	9.0	15.7	9.4	16.7
기업경상이익	9.0	20.9	12.4	19.1	9.3	18.2	7.9
도매물가지수	-1.5	0.3	0.9	-1.1	0.2	-1.7	-0.1
경상흑자(억달러)	1,242	1,016	777	1,036	644	1,047	585

주 : 「日本經濟 모델」에 의한 예상치

(3) 모색되는 日本의 對應 方向

○ 短期的으로는 公共投資 擴大를 통한 고배 지진 복구책 마련

- 일본 정부는 지진복구 투자를 建設國債 發行이 아닌 기존 공공투자 15% 삭감으로 대처하려 하자, 복구자금 수요에 따른 금리 인상 압력이 예상된 것이 최근 新엔고의 결정적 원인 중의 하나였음
 - 따라서 지진 복구를 增稅나 확정된 공공투자 계획의 감소가 아닌 建設國債 發行에 의한 투자의 純增으로 대처함
- 복구 자금 수요에 의한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함 (최근 정부 차원에서 금융 완화 조치가 발표되었음)

○ 長期的으로는 엔貨 결제율 제고, 엔블럭 형성과 지속적인 海外生産를 추구함

- 수출의 80%, 수입의 50%를 마르크貨로 결제하는 독일처럼 수출입의 엔화 결제율을 높임(현재 일본의 엔貨 결제율은 수출 25%, 수입 15%)
- 특히 아시아 지역의 엔블럭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稅制 改革과 規制緩和로 '開放된' 금융·자본시장 건설을 추진중 임

(홍 근 철)

2. 新엔高와 韓國 經濟

- (影響) 新엔高로 인한 肯定的인 影響(수출 증가와 GNP 증가 등)들은 長期的으로 部品과 技術의 對日 依存度 축소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否定的인 影響(물가 상승과 원화 절상 등)에 의해 相殺되어 버릴 것임
 - 肯定的 影響
 -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인한 輸出 增大와 무역수지 개선
 - 수출증대에 따르는 GNP, 투자 증가
 - 否定的 影響
 -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액 증가와 이로 인한 對日 貿易赤字의 심화
 - 수입물가 상승에 기인한 國內 物價 上昇
- (對應 方案과 示唆點)
 - 단기적으로 換危險 관리를 위한 첨단 金融기법 도입
 - 장기적으로는 부품과 기술의 對日 依存度 縮小
 - 이를 위해 기술 개발 및 일본 주요 산업에 대한 유치 노력 필요
 - 國際 外換市場의 不安定性 增大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國內 經濟의 安定을 도모할 수 있는 政策운영이 필요

○ (新엔高의 영향)

엔貨의 평가 절상은 국제 시장에서 日本과 경쟁관계에 있고 日本에 대한 수출과 수입의존도도 각각 14%와 25%에 달하는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긍정적 영향)

- 新엔高는 日本에 대한 상대적인 가격경쟁력 향상을 통해 우리 나라의 수출을 증대시켜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음
 - 엔貨가 20% 절상되면 日本제품의 수출가격은 12.2%상승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출가격은 日本으로부터의 자본재·원자재 수입단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1.2%상승에 그칠 것으로 분석(산업은행)
 -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日本과 주로 경쟁하고 있는 상품의 수출에는 호재로 작용하여 전자부품, 자동차, 조선 등의 수출은 늘어날 전망
- 수출 증대에 의한 경기 활성화로 GNP, 투자의 증대효과
- 반면 新엔高로 인한 경상수지의 개선과 국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화 환율의 절상은 엔고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음

○ (부정적 영향)

- 日本으로부터의 수입액은 크게 증가하여 대일 무역적자 심화 예상
 - 日本에서 수입되는 자본재, 원자재의 달러 표시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하여도 우리의 수입 구조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수입 물량이 크게 줄지는 않을 전망 이어서 수입 금액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日本으로부터의 부품 수입의존도가 높은 각종 기계류와 제어 설비산업은 원 가 부담이 가중됨
 - 日本 수출업체들이 엔貨로 결제를 요구 우리에게 떠맡기는 엔高 부담까지 감안하면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新엔高는 日本으로부터의 수입물가 상승에 의해 국내물가에 상승 압박을 줌
- 국내 산업의 양극화 현상의 가속화
 - 반도체, 철강, 조선, 소형자동차 등 대일 경쟁력을 갖춘 산업의 경우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생산기반이 확충되겠지만, 중간재의 대일 의존도가 높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섬유, 신발 등 경공업 부문은 생산기반이 위축될 것으로 보임
-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엔貨 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
 - 新엔高로 인한 기업들의 환차손이 무려 1,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대우 경제연구소)

<엔貨 10% 절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 (%·억 달러)

	GNP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원화 환율 절상률	수출 증가액	수입 증가액	무역수지 개선액
한국은행	0.5	0.1	-	17.3	12.5	4.8
무역협회	-	-	-	17.6	8.2	9.4
통상산업부	-	-	-	28.2	9.2	19.0
HRI	0.42	0.06	0.45	21.6	9.4	12.2

주 : 1995년 1/4분기에 엔화가 10% 절상되어 지속될 경우 1995년의 각 지표들의 증가분을 표시하고 있음

○ (對應 方案과 示唆点)

- 우리 경제의 개방화와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이번의 엔고와 같은 국제 외 환 시장의 변화는 더욱 깊고 폭넓게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단기적으로는 환위험 관리를 위한 첨단 금융 기법의 도입이 확산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는 핵심부품과 기술개발에 힘쓰고 엔高를 피해 해외 이전을 추

진하는 日本의 주요 산업에 대한 유치 노력 강화가 필요

- 日本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日本과 산업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日本으로부터의 기술 이전 및 산업협력의 강화뿐만 아니라 핵심부품과 설비 등의 대일의존도 축소를 위해서도 日本기업의 유치가 필요함
- 플라자 합의에 의해 엔貨가 거의 113% 절상되었던 1985년에서 1988년사이의 경험은 기술 개발 및 기업 합리화 투자를 통한 부품의 국산화에 힘쓰지 않을 경우 엔高로 인한 반사적 이익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줌
 - 당시 기업들은 엔高로 인해 수출이 늘어나는 이득을 누렸으나 이를 구조조정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와 같은 재테크에 활용, 엔高가 끝난후 경쟁력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음
 - 86~88년의 기술개발 및 기업 합리화 투자 증가율은 각각 13.9%, 14.5%, 15.8%로 85년의 17.3%를 밑돈 반면, 지가 상승률은 85년 7%에서 87년 14.7%, 88년 27.5%, 89년 32%로 급격히 증가했던 것은 이를 반영함
 - 또한 기계류 및 부품 소재 수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데도 실패하여 80~85년 연평균 25.2%였던 자본재 수입 비중이 엔高 시대 이후 90년 36.4%, 91년 36.9%, 92년 37.4%, 93년 36.5%로 오히려 증가하여 이번 新엔高 시대에도 여전히 자본재수입 부담이 가장 큼
- 최근의 엔貨 강세 현상은 우리의 환율정책 등 거시 경제 정책의 운용과 관련해서도 시사점을 줌
 - 이번 엔貨 강세는 국제 외환 시장이 경제의 기초적인 여건(economic fundamentals) 보다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위한 투기적 요인에 의해 쉽게 동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외환 및 자본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도 앞으로 국제 외환 시장의 동요에 의한 충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국내 거시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운영이 필요함
- 작년 상반기 이후 브레튼우즈 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준고정환율(flexible exchange rate bands)제도로의 국제 환율 제도 개편 움직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 보 성)

3. 新엔고의 産業別 影響과 對應 方向

산업별 영향 요약

○ 費用

- (費用 上昇 大) 공작기계의 경우 부품과 설비용 공작 기계의 대일 수입 의존도가 비교적 높아 엔고에 따른 비용 상승 압박이 클 것임
- (費用 上昇 小) 자동차, 반도체, 건설의 경우 부품과 설비의 對日 수입 의존도가 비교적 낮아 엔고에 따른 비용 상승 압박은 크지 않을 것임
- (影響 別無) 조선, 석유 화학, 철강의 경우 부품과 설비의 대일 수입이 극히 미미해 영향은 거의 없을 것임

○ 貿易

- (收支 改善 大) 조선, 반도체에서는 대일 가격 경쟁력 강화로 큰폭의 수지 개선이 예상됨
- (收支 改善 小) 자동차, 건설의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약간 개선돼 약간의 무역 수지 개선이 기대됨
- (거의 不變) 석유 화학의 경우는 일본과 직접 경합되는 품목이 적어 무역 수지는 거의 변하지 않을 것임
- (收支 惡化) 공작 기계와 철강은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입이 더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임

<엔고의 산업별 영향>

(10% 엔화 절상時)

항목 \ 산업		자동차	조선	공작 기계	반도체	석유 화학	철강	건설
費用	部品·材料	+	△	++	△	△	△	△
	設備 費用	+	△	++	+	△	△	+
	綜合	+	△	++	+	△	△	+
貿易	輸出	++	++	+	++	+	△	+
	收入	+	△	++	△	+	+	△
	收支	+	++	-	++	△	-	+

++: 크게 증가 +: 약간 증가 △: 거의 불변 -: 약간 감소

(1) 自動車

- (現況) 일본 업체들의 고급화 전략, 가격 경쟁력 약화 등으로 소형차 중심의 한국산 차의 경쟁 여건이 호전되고 있음
- (展望)
 - 대일 부품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됨
 - 수출은 對日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수입은 일본산 부품에 의 의존도가 높은 일부 내수 모델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歐美産 수입차의 가격 경쟁력이 다소 향상될 전망
- (效果) 일본 부품 기업들의 對韓 투자가 증가할 전망인데, 이를 기술 축적의 기회로 활용
- (對應) 부품 조달 체계 개선 등 구조적인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한 가격 경쟁력 향상 기회로 활용

○ 競爭 狀況

- 북미 시장의 경우, 일본 업체들의 고급 차종 수출 전략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산 소형차들의 모델 노후화와 판매 부진에 따라 본격적으로 신모델을 내놓고 있는 한국산 차의 경쟁 여건은 양호
- 유럽 시장의 경우는, 일본 업체들이 유럽 현지 생산을 늘리고는 있으나 우리 업체들이 현지 판매력을 강화하고 있고, 한국산 차가 가격 경쟁력 우위 유지
- 동남아 시장에서는 현지 생산 차들의 품질 열위와 일본산 차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국내 자동차의 수출 경쟁력이 유리한 상태임

○ 期待 效果

- 국내 업체들 중 대우와 기아는 일본 부품에의 의존도가 높아 엔고로 인한 비용 상승 압박이 크겠지만 현대의 경우는 의존도가 낮아 압박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임
-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일본 업체들의 해외 투자가 증대할 전망인데, 범용 부품이 아닌 고기술을 요구하는 부품들은 우리나라가 최적 투자국이 될 것이므로 고부가가치, 고기술 분야에서 일본 업체들의 對韓 투자가 늘어날 전망
- 수출에서는 완성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띠고, 부품의 경우에도 한국산 부품의 對 일본 수출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
- 국내 시장에서는 일본 부품 의존도가 높은 일부 국산 중대형차에 비해 歐美産 수입차의 경쟁력이 다소 좋아질 수 있겠으나, 국내 업체들이 부품 가격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시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엔고 현상이 수입차의 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임. 대신 일부 국내 업체들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

○ 對應 方案

- 해외 시장에서의 시장 확보를 위한 공세적 판매 전략이 필요
- 일본산 차 대비 가격 경쟁력 우위를 기회로 중형차 부문의 수출 강화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품조달 체계개선 등 구조적인 비용 절감의 기회로 활용
- 일본 부품 업체들의 투자 유치를 통한 기술 습득

(신 승 철)

(2) 造船

- (現況) 엔고로 일본에 대한 우리의 가격 경쟁력 우위는 15%이상으로 높아짐
- (效果) 1995년도 수주량은 연초의 계획보다 100만 GT가 늘어난 1,050만 GT에 이를 것임
- (對應) 협조적 노사 관계의 정착을 통해 매출 신장의 기회로 적극 활용

○ 競爭 狀況

- 한국과 일본이 세계 조선시장의 70%이상을 점유,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음
- 한국은 LNG선 등 일부 고부가가치선종을 제외하고는 생산성 측면에서 일본의 80% 이상이며 가격경쟁력에서는 오히려 5-15% 정도의 우위에 있음

○ 期待 效果

- 한국 조선업체들의 국산화율은 90%에 가까우며 일본에서 수입하는 일부 부품도 일시적으로 국내 공급이 부족한 강재류임. 따라서 각종 기자재의 국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엔고로 인한 건조 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임
- 작년 말에 비해 10% 수준의 엔고가 지속될 경우 일본 조선업체의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노력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일본 업체의 수출 가격 전가율이 80% 이상으로 예상되어 우리의 對日 가격 경쟁력 우위는 13-23% 정도로 높아질 것임
- 국내 조선업체의 신규 도크 증설로 인한 건조 능력 증대에 엔고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가세되면 95년도 조선 업체의 수주량은 연초 계획을 100만 GT 초과하는 1,050만 GT까지 바라볼 수 있음. 이는 약 4억-4억 5천만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를 의미함(통상산업부)

○ 對應 方案

- 협조적 노사 관계의 정착을 통해 차질없는 조업 추진으로 매출 신장의 기회로 적극 활용

- 단기적으로는 현장의 작업 조직과 layout의 정비, 장기적으로는 자동화 설비 도입을 통한 설계, 건조 공정에서의 자동화를 향상으로 생산성을 일본 수준으로 제고

(조 홍 래)

(3) 工作 機械

- (現況) 일본 제품에 비해 품질 등 비가격 경쟁력 면에서 절대 열위에 있음
- (效果) 수출 증대는 미미한 가운데 오히려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것임
- (對應)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수입선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競爭 狀況

- 일부 범용 기계를 제외하고 일본에 비해 절대 열위에 있음.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이유는 주로 품질면에서의 현격한 차이에 기인함
- 국내 시장에서는 특히 기계 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데 핵심 부품인 NC Controller의 경우, 약 70-80%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음

○ 期待 效果

- 엔고가 진행되더라도 일본에 대한 수출 비율도 낮고 해외 수출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 오히려 부품 가격의 상승으로 일부 수출 제품의 경우 수출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또한 확장기에 있는 경기 상황은 엔고에도 불구하고 대일 수입 규모의 확대를 촉진시킬 것임

○ 對應 方案

-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필요하며 수입선 다변화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저급, 범용, 특수 용도 기종을 중심으로 일본 시장의 진출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류 재 현)

(4) 半導體

- (現況) DRAM 분야에서 일본 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매우 치열하게 경쟁 중임
- (效果) 공급 능력만 충분히 확대된다면 큰 폭의 수출 증가가 예상됨
- (對應) 이미 구축한 양산 라인의 조기 가동과 신제품에 대한 양산 투자의 조속한 집행이 필요

○ 競爭 狀況

-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79.2%는 DRAM임. 그런데 세계 DRAM공급 중 70% 이상을 한국과 일본이 담당하고 있음(일본 45%, 한국 25%). 또한 시장도 북미, 동남아, 유럽에 집중되어 있음
- 경쟁력 면에서도 DRAM 분야에서는 일본이 추월당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우리의 공격과 일본의 방어 경쟁이 매우 치열함

○ 期待 效果

- 우리 업계의 일본제 장비에 대한 의존도는 약 30%정도로 비용면에서 약간의 상승 요인이 있지만 일본의 수출 가격 상승 압박이 더 클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우리의 가격 경쟁력은 향상될 것임
- 일본 업체들은 엔고로 반도체 가격을 5% 정도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급 능력의 한계로 당장 공급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작년말 대비 10% 정도의 엔고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수출은 연초의 전망치보다 약 5% 정도의 증가가 예상됨(상자부 자료)
- 수입의 경우 반도체 수입의 대부분은 CPU등 비메모리 반도체임. 이는 주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엔고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고 오히려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해 반도체 수요 산업의 비용 절감이 예상됨

○ 對應 方案

- 이미 투자한 신규 생산 라인의 조속한 가동 및 신제품 양산 체제의 조기 구축
- 일제 장비 중 호환성 있고 표준화된 것들의 구미로의 수입선 전환
- 설계 기술 축적 및 비메모리 분야에의 투자 확대로 취약한 분야를 보강

(김 창 욱)

(5) 石油 化學

- (現況) 범용 제품 분야에서 일본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음
- (效果) 일본 제품과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영역이 적기 때문에 수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 (對應) 범용 제품의 대일 수출 확대 노력, 특수 그레이트 제품 개발 및 수입 대체

○ 競爭 狀況

- 국내 석유 화학 업체들의 수출 주력 시장은 동남아 시장이고, 새로운 시장으로 중국이 부상하고 있음
- 일부 특수 석유 화학 제품에서는 국산 제품의 품질 및 기술 경쟁력이 일본 제품보다 낮으나,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범용 제품의 경쟁력은 이미 일본 제품의 경쟁력을 능가하고 있음

○ 期待 效果

- 원재료뿐만 아니라 국내에 장치된 석유 화학 설비의 대부분이 유럽이나 미국산 제품이어서 중간재의 대일 수입 의존도가 매우 낮음. 따라서 엔고로 인한 비용 상승 효과는 거의 없음
- 수출에의 영향을 보면, 동남아 및 중국 시장에서 일본은 각각 1,082억 엔, 470억 엔 어치를 공급(93년의 경우)하고 있는데 이들 일본 제품들 중 일부를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예상됨. 그러나 이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주된 경쟁 상대는 일본산 제품이라기보다는 유럽산 제품이므로 일본 제품에 대한 대체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임
 - 일본의 전체 석유 화학 제품 수입품 중 우리나라 제품의 점유율은 19.6%인 228억엔임(93년의 경우). 엔고는 범용 제품의 對日 경쟁 우위를 더욱 강화하게 됨으로써, 대일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국내 시장에서는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수 제품이 가격보다는 기술 수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엔고로 인한 수입 대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단, 일본산 일부 특수 그레이트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은 다소 증가될 것임

○ 對應 方案

- 범용 제품의 대일 수출 확대 노력
- 특수 그레이트 제품 개발 및 수입 대체

(박 송 동)

(6) 鐵鋼

- (現況) 판재류 분야에서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음
- (效果) 공급 능력의 부족으로 엔고의 기회를 활용하고 있지 못함
- (對應) 공급 확대를 위한 고로 설비의 증설이 긴급

○ 競爭 狀況

- 우리나라 철강 제품 수출의 주종은 판재류임(수출의 60%). 이 판재류에서 보통강의 경우는 일본과 비슷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음. 그러나 고급강의 경우는 우리가 경쟁력에서 열세에 있으며 현재 기술 축적을 통해 추격 중에 있음
- 조강류의 경우에는 주로 내수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 공급선들도 주로 개도국들이어서 일본과 경합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님

○ 期待 效果

- 엔고로 판재류 수출에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내수에도 못미치는 공급 능력의 부족으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작년 중화학 제품의 수출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도 철강 제품은 공급 능력 부족으로 오히려 수출이 15.5% 감소하였음. 수입은 38.9%나 증가함
 - 이러한 공급 능력의 부족은 판재류의 소재가 되는 선철을 생산하는 고로 설비의 부족에 기인함
- 국내 시장의 공급 부족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작년 일본으로부터 철강 수입은 48.3%나 급증했으나 일본에 대한 철강 수출은 7.0% 증가에 그쳐 철강 제품 대일 무역 수지가 4년만에 적자로 돌아섬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엔고는 국내 철강 수요 산업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당장은 공급 능력의 한계로 수입 대체를 이루기가 어려움

○ 對應 方案

-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판재류의 공급 능력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판재류의 원료를 공급하는 고로의 증설 투자가 긴급함
- 지속적인 고급 강종 개발로 수입 대체를 도모하면서 수출 공급 구조를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

(채 영 배)

(7) 建設

- (現況) 진출 분야의 차이로 일본과의 경합 정도는 낮은 편임
- (效果) 동남아 지역의 SOC 부문에서 수주 증가가 예상됨
- (對應)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플랜트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 노력 필요

○ 競 爭 狀 況

- 우리나라 건설 업체의 1994년 해외 건설 총수주는 74억 달러인데, 이중 중동 지역이 23억 달러(30.9%), 아시아 지역이 45.5억 달러(59.9%)로 양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분야별로는 토목 38억 달러(51.1%), 건축 18억 달러(24.2%), 플랜트 15억 달러(22.2%)임.
- 일본 건설 업체의 해외 진출은 중동 12.2%, 아시아 70.8%로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 건설 업체와 경합 관계에 있음
- 동남아 시장에서의 일본 업체 주된 진출 부문으로서 고기술을 요하는 플랜트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어 기술 수준의 차이로 인해 우리 건설업체와 플랜트 부문에서의 경합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임

○ 期 待 效 果

- 국내에서 생산된 플랜트 원자재의 가격 경쟁력이 엔고로 인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플랜트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또한 토목이나 건축 부문 등 동남아 지역의 SOC 부문에서도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절상 폭이 엔화 강세폭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 업체의 수주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 분야에서 일본의 수주 규모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대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 對 應 方 案

- 엔고로 인해 국내 건설 업체에 약간의 가격 경쟁력이 생겼으나 이것으로 고부가가치 건설 분야에서의 수주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플랜트 사업 확대를 위해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Financing 능력, 정보 수집, 컨설팅 능력, 계약 교섭 기술 등의 제고를 통해 비가격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해야 함

(김 선 덕, 윤 창 호)